



비과세 보단 운용사 능력·정보력 따져야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개인투자자들의 눈길을 끄는 내용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고,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100만불에서 300만불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역외펀드, 국내·해외펀드 전환 유리

이번 조치는 경상수지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우리나라 국제수지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탈바꿈시키고, 국내 성장주식의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며, 실질적인 해외부동산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한도 상향을 조정하겠다는 명분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이는 1월 11일 '부동산 제도개편 방안'이 발표된 직후 나온 것으로, 국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국내부동산에서 해외주식과 해외부동산으로

분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안정적인 경상수지 확보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중국, BRICs 등의 해외펀드 수익률이 국내 증시의 수익률을 상회하면서 해외펀드 누적액이 총 20조원이 넘는 데다 이번 조치 발표로 인해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해외펀드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해외역외펀드나 역외펀드로 구성된 재간접펀드(펀드 오브 펀드)의 환매 움직임

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거 수익률을 중심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우리나라 개인투자자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질세에 대한 만능주의가 결합된 재간접펀드의 경우 양도차익이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돼 수익이 4천만원이 넘는 경우 펀드 환매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역외펀드의 비중을 국내펀드나 운용능력이 검증된 해외펀드로 전환한다면 투자수익의 대부분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TNV 어드바이저)

해외펀드 3년간 비과세 한다는데...

소비자 신뢰지수 亞·太국중 '꼴찌'

한국 13개국중 13위

■마스타카드 소비자 신뢰지수

순위	국가	소비자 신뢰지수	증감
1	베트남	93.7	+4.1
2	홍콩	88.8	+0.3
3	싱가포르	82.5	+8.6
4	중국	81.2	+3.0
5	일본	68.3	-0.6
6	태국	65.1	+36.5
7	인도네시아	62.5	+20.1
8	뉴질랜드	61.0	+15.8
9	필리핀	57.2	+5.3
10	호주	45.3	-1.2
11	말레이시아	37.5	-13.9
12	대만	30.8	+1.7
13	한국	29.3	+1.2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홍콩 경제일보가 18일 보도했다.

마스타카드 인터내셔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13개국의 중 상위 소득계층 5천 4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 소비자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29.3으로 13위를 기록했다.

지난 6개월전보다는 1.2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마스타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경제와 고용, 삶의 질, 고정수입, 주식시장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향후 6개월간의 전망을 물어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인 50을 넘으면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비관적인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반기전보다 4.1 포인트 상승한 93.7로 가장 높았고 홍콩이 88.8, 싱가포르 8.6, 중국 81.2, 일본 68.3 등으로 이어졌다.

/홍콩=연합뉴스

중기청-KT-전국 시장상인聯 재래시장 IT화 추진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순회교육

중소기업청과 KT가 국내 재래시장의 IT(정보통신)화에 적극 나섰다.

18일 서울 종로 광장시장에서 중소기업청, KT, 전국시장상인연합회간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국의 재래시장 IT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3개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정보화 기반이 취약한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보급형 PC, 초고속인터넷 등 IT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정보화 교육 지원 사업을 펼쳐 디지털 혁신 상인을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재래시장 정보화 사업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KT는 정보화 수준이 열악하고 일상 생활에 바쁜 시장상인들에게 보다 가볍고 편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와이브로, 무선랜, 스카이라이프, 메가패스 등 첨단 IT서비스가 탑재된 이동교육용 버스를 지원한다.

한꺼번에 30명이 버스에 탑승해 인터넷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게 된 이 버스는 전국시장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전국 1천600여개 재래시장을 순회하며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PC 이용법, 인터넷 활용,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 IT교육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디지털 혁신상인 육성을 통해 시장상인들이 기존 점포 외에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기업간),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e마켓을 추가로 개점해 온·오프라인 거래가 가능한 1인 2점포시대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전국 재래시장에 PC 3만대와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전국 600여개 재래시장에 보급형 PC 3만대를 시가의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종태기자 jlee@kwangju.co.kr



삼성전자와 타임워너사는 18일 OCAPI(Open Cable Application Platform) 기반의 삼성 DLP TV 혹은 셋톱박스를 통해 미국 전역에 양방향 디지털 케이블 방송 서비스를 개시했다. 양 사 관계자들이 이날 미국 현지에서 양방향 디지털 TV 방송 서비스 개시 일정을 밝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IMF 부국장 “한국 부동산값 폭락 없다”

제럴드 시프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담당 부국장은 17일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앞으로 몇개월 두고 봐야 하지만, 폭락(massive down-turning)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시프 부국장은 주미 한국 홍보원에서 한국 경제 전망에 관한 강연을 한 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한 질문에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엔 “투기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구는 늘지 않아요. 가구 수는 늘고 또 서울 유입이 계속

되는데 오랫동안 공급이 줄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주택가가 급상승하고 있으나 1990년 1월을 100으로 했을 때 전국 및 서울의 주택가가 1991-1992년엔 110을 상회했으나 현재는 서울 90 이상, 전국 80이하로 “실질 비교에선 여전히 사상 최고점엔 미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집값 상승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은행대출의 증가를 들고 “각종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 대출이 둔화

되는 초기 징후가 보인다”며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주택가가 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가구 부채가 높은 점이 주택가 하락에 특별히 취약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자주 변하면 사람들이 앞으로 6개월 후 정책을 예상치 못해 여러 다양한 행태를 낳고 가격 상승도 초래할 수 있다”며 “매우 최근 수개월간, 투기적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2-3%씩이나 양등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가짜 세금계산서 집중단속

국세청은 오는 3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법인들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혐의를 집중 관리,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들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 비용 허위 계상 등 방법으로 법인세를 줄여 신고하거나 비자금 조성하는 사례가 있다”며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루 등 소지가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의 안내문을 오는 2월 중 배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세청 분석 결과, 작년 1~9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은 건설, 도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4천 580개사이고 매입규모는 5천935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루 유형으로 ▲위장 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매입세액 부당 공제 ▲하도급 업체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건설사 ▲아파트 부지 매입비를 부풀린 건설 시행사 ▲분양광고비를 허위 계상하는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대행사 ▲허위로 내부공사 비용을 계상한 도소매업체 등을 들었다.

국세청은 예방 안내문을 받고도 안내 사항을 지키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정신고 안내 등의 과징 없이 바로 세부조사 대상으로 선정,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재경부 세제실장 “세금 절낸 의료기관 감세혜택”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으로 의료기관들의 세원이 일시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전년 대비 세금 증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료기관의 비보험 대상 부분

의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어제 관계전문가, 협회 등과 의료비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전년 대비 세금 증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어제 관계전문가, 협회 등과 의료비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전년 대비 세금 증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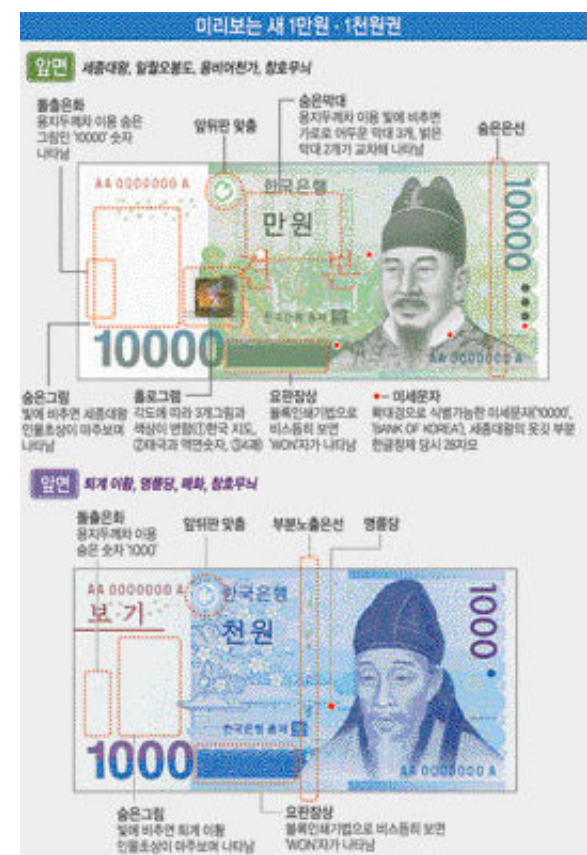
새 1만원·1천원권 지폐 더 밝고 아담해졌다

오는 22일 새 1만원권과 새 1천원권이 발행, 시중에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작년 1월초 발행된 새 5천원권에 이어 새 1만원, 1천원권이 시중에 유통됨으로써 1983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지폐 디자인이 완전히 교체되는 셈이다.

◆출어른 크기, 밝아진 색상=현재 1만원권은 가로 161mm, 세로 76mm이지만 새 지폐는 가로 148mm, 세로 68mm로 각각 13mm, 8mm 축소된다. 1천원권도 현재 151x76mm에서 136x68mm로 가로 15mm, 세로 8mm가 줄어든다.

◆1만원권은 ‘과학기술’, 1천원권은 교육·예술이 주제=세종대왕을 인물초상으로 한 1만원권은 ‘우리의 선진 과학기술’을 도안의 주제로 삼고 있다. 앞면 배경그림은 ‘응미어 천가’와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 뒷면 바탕무늬로는 국보 제228호인 조선시대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를 펼쳐 놓은 위에 보조소재로 천문관측기구인 혼천의와 보현산 천문대의 광학천체망원경을 나란히 배치했다. 조선시대 대학자 퇴계 이황을 인물초상으로 한 1천원권은 명륜당과 매화나무를 앞면 보조소재로 채택했다.

◆대폭 보강된 위·변조 방지장치=새 1만원권에는 좀 더 크기가 확대된 정사각형 모양의 홀로그램이 들어간다. 이 홀로그램에는 우리나라 지도와 태극, 역병숫자, 4괘 등이



변갈아 나타난다. 그러나 새 1천원권에는 홀로그램이 부착되지 않는다. 1천원권에는 중앙무늬에 숨고 드러나기를 반복하는 띠가 위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민소득 2만달러는 미국의 80년대 소득수준”

LG경제연구원은 18일 ‘국민소득 2만달러 이후 한국경제’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300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성장률 4.2%, 물가상승률 1.5%, 원·달러 환율 910원, 인구증가율 0.3%를 전제로 이룬 전망이 나왔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910원으로 유지되고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1.3%로 가정하면 2015년에는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연합뉴스

‘반기업 정서’ 줄었다

商議 2천명 조사... 기업호감지수 높아져

국민의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개선돼 반기업 정서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호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호감지수’(CFI)가 100점 만점에 50.2점으로 집계돼 그동안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FI(Corporate Favorite Index)는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호감도는 높아지며 0에 가까울수록 낮아지며 국가경제 기여도, 윤리경영, 생산성 향상, 국제경쟁력, 사회공헌 등 5개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는 2003년 12월 첫 조사때의 38.2점보다 12점 높아진 것으로 반기업 정서 완화의 7차례의 조사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CFI는 지난 3년간 매 조사때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향후 더 상승할 가능성을 보였다.

/연합뉴스

대기업·지방 기업 157개사를 올 상반기 1만6천명 뽑는다

자산규모 기준 상위 100대 기업과 지방의 주요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만6천여명을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100대 기업과 지역별 주요 기업 160개 등 총 22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규인력 수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00대 기업 중 56개, 지방 기업 101개 등 총 157개 기업이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1만6천7명 채용했거나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경우 전년 동기(2005년 하반기에서 2006년 상반기)에 비해 채용인원을 늘린 곳은 38.2%에 불과하고 변동이 없거나(50.9%) 감소한 곳(10.9%)은 61.8%에 달했다.

반면 지방 유망기업은 절반에 가까운 47.5%가 채용규모를 늘렸다고 밝혔고 감소했다(15.2%)고 변화없었다(37.4%)고 응답한 곳은 대기업에 비해 적었다.

/연합뉴스